

2013년 5월 6일 보낸 편지입니다.(3,135조화)

밤새 부르는 사랑 노래
一晩中歌う愛の歌

시냇물과 바다에
小川の水と海に

목소리를 주셨듯
音を与えたように

늘 푸른 호수에
いつも青い湖に

소리를 주신다면
音を与えられたら

머문 것 같으되
とどまったみたい

멈추지 않는 그대의 노래
とまらない君の歌

밤새워 밤새워
一晩中、一晩中

부르게 하리
歌うようにする

- 고창영의 시집《힘든줄 모르고 가는 먼길》에 실린
- コ・チャンヨン の詩集〈つらさを知らず行く遠き道〉 -

시〈호수〉(전문)에서 -
詩〈湖〉(前文)より -

* 여보.
* 嫁

그대가 잠들어 내는
君が眠って出す

숨소리가 오늘따라 노래로 들립니다.
息遣いが今日に限って歌に聞こえます

호수처럼 멈춘 듯 멈추지 않는 그대의 노래.
湖のように、とどまるように、とどまらない君の歌

그대가 부르는 사랑 노래에 따라 흥얼대다
君が歌う愛の歌にそって鼻歌を歌う

나도 모르게 같은 호수 소리를 내며
私も知らずとともに湖の音を出しながら

달콤한 잠에 빠져 듭니다.
甘い眠りに落ちています

밤새 합창을 합니다.
一晩中合唱します

시냇물

1. [명사] 小川の水。

머물다

1. [자동사] 머무르다の縮約形。

머무르다

1. [자동사·르 불규칙활용] 止まる; 停止する; 停泊する。

2. [자동사·르 불규칙활용] とどまる; 居残る。

숨소리

1. [명사] 呼吸の音; 息づかい。

오늘따라

1. [부사] 今日に限って; よりによって今日のような日に。

首で拍子をとりながらつられて鼻歌をうたう。

고갯장단을 맞추며 덩달아 흥얼대다. → 고갯장단

합창 [合唱]

1. [명사·하다형 타동사] 合唱; コーラス。

[2013년5월7일 오늘의 아침편지]

'병자'와 '힐러'
'病人'と'ヒーラー'

니체에 따르면
ニーチェによれば

자신의 삶의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하며
自信の人生の問題を周りの人に投射し

의혹과 악의, 자기부정의 태도로 자신과 타인을
疑惑と悪の、自己否定の態度で自分と他人を

괴롭히며 살아가는 사람을 '병자'라 부른다.
困らせて生きていく人を'病人'と呼ぶ

그들은 가장 오래된 상처를 찢고,
彼らは、もっとも古い傷を引き裂き

오래전에 치유된 상흔에서 피 흘린다.
ずいぶん前に治った傷跡から血を流す

그들은 친구와 아내와 아이들과 그 밖에
彼らは友達と妻と子供たちと、その外に

그들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彼らの周辺に、近くいる人々を

악인으로 만든다.
悪人にする

- 김정현의《철학과 마음의 치유》중에서 -
- キム・ジョンピョンの〈哲学と心の治癒〉より -

* '상처'도 두 갈래가 있습니다.
* '傷'も2つあります

하나, 상처를 후벼파 본인은 물론
一つは、傷を穿って本人はもちろん

다른 사람까지 아프게 만드는 '병자'의 것이고,
他人まで痛くする'病人'のことで

다른 하나는, 아픈 상처를 힐러의 통로로 삼는 것입니다.
もう一つは、痛い傷をヒーラーの通路とするものです

이미 지나간 상흔을 다시 건드려 주변 사람을 힘들게
すでに過ぎ去ったかさぶたをもう一度触れて、周りの人をつらく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위로하고
するのではなく、むしろさらによく慰労して

치유의 힘을 발휘하면, 그가 곧
治癒の力を発揮すれば、彼がまさに

최고의 힐러입니다.
最高のヒーラーです

びょうにん [病人]

1. [명사] 병자. [동의어]患者.

투사 [投射]

1. [명사] 投射。

2. [명사·하다형 타동사] 槍や砲弾などを投げたり撃つこと。

의혹 [疑惑]

1. [명사·하다형 자·타동사] 疑惑; 疑い。

악 [惡]

1. [명사] 惡。

괴롭다

1. [형용사·ㅁ 불규칙활용] 安らかでなく苦痛をおぼえる; 苦しい; つらい。

2. [형용사·ㅁ 불규칙활용] きつくて難しい。

건드리다

1. [타동사] 触るか触れるかして動かす。

2. [타동사] 人の心を傷つける; 刺激する。

2013년 5월 8일 보낸 편지입니다.(3,500조화)

누군가
誰かが

누군가 등산로에
誰か登山路に

채송화를 심었다
マツバボタンを植えた

채송화 꽃이 피었다
マツバボタンの花が咲いた

누군가
誰かが

봉숭아를 심었다
鳳仙花を植えた

봉숭아 꽃이 피었다
鳳仙花の花が咲いた

누군가
誰かが

내게 마음을 심었다
私に心を植えた

나도 꽃이 되었다
私も花になった

- 고창영의 시집《힘든줄 모르고 가는 먼길》에 실린
- コ・チャンヨン の詩集〈つらさを知らずに行く遠き道〉に掲載された

시〈누군가〉중에서 -
詩〈誰か〉より -

* 맨 땅에
* 荒地に

꽃을 심으면 꽃밭이 되고
花を植えれば、花束になって

나무를 심으면 푸른 숲이 됩니다.
木を植えれば、青い森になります

맨 땅처럼 마르고 지친 내 마음에
荒地のように枯れて、疲れた心に

누군가 들어와 사랑을 심으니
誰かが入ってき愛を植えたので

나도 어느새 꽃밭이 되고
私もいつの日か花束になって

푸른 숲이 됩니다.
青い森になります

채송화 [菜松花]

1. [명사] 『식물』マツバボタン(スベリヒユ科の春まき一年草)。

맨땅

1. [명사] 何も敷物を敷いていない地面。

2. [명사] 肥料をやっていない土地。

지치다1

1. [자동사] 疲れる; へとへとになる; くたびれる; 飽き飽きする。

2013년 5월 9일 보낸 편지입니다.(428조회)

10년을 젊게 산다
10年を若く生きる

진정한 감각주의자이자
本当の感覚主義者であり

제대로 먹는 법을 아는 여자들은
ちゃんと食べるご食事をわかる女性は

그런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 비해
そんな食事を知らない人々に比べて

10년을 젊게 산다.
10年を若く生きる

- 데브라 올리비에의《프렌치 시크》중에서 -
- デブラ・オリバーの〈フレンチシック〉より -

* 같은 나이에도
* 同じ年でも

훨씬 젊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一層若く生きる人がいます

감각도 '젊은 감각'과 '늙은 감각'이 있습니다.
感覚も'若い感覚'と'古い感覚'があります

먹는 음식 하나에도 그 감각의 나이가 드러납니다.
食事一つにも、その感覚の年が現れます

세상을 보는 눈, 표현방식, 삶의 태도에 따라
世の中を見る目、表現方式、人生の態度によって

10년을 젊게 살 수 있습니다.
10年若く生きる場合もあります。

늘 청춘입니다.
ずっと青春です

2013년 5월 10일 보낸 편지입니다.(627조회)

매력있다!
魅力ある!

프랑스 사람들은
フランス人は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다.
皆が好きな人になりたくない

모두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오히려
皆が好きな人といえ、むしろ

개성이 없는 걸로 간주된다.
個性のないとみなされる

섹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セクシーではないのはもちろん

고유의 독창성이 없는 걸로 간주된다.
固有の独創性がないとみなされる

- 데브라 올리비에의《프렌치 시크》중에서 -
- デブラ・オリバーの<フレンチシック>より -

* 섹시하다! 매력있다!
* セクシーだ、魅力ある!

그 사람만의 개성이 있다는 칭찬입니다.
その人だけの個性があるという褒め言葉です

그러나 모든 개성이 곧 매력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しかしすべての個性が、必ず魅力的にな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색을 입히고 포인트를 주는
時代の流れに合わせ、色を塗り、ポイントを与える

노력과 안목이 필요합니다. 시대 흐름을 읽되
能力と眼目が必要です。時代の流れを読んで

그보다 반걸음쯤 앞서 색깔을 입힐 때
それより、一歩くらい前に、色を塗るとき

비로소 진정한 섹시함과
ようやく本当のセクシーさと

매력이 돋보입니다.
魅力が引き立ちます

걸로
1. [약어] 것으로의縮約形:それで; それをもって; …で。
みなし [見做し・看做し]
1. [명사] 간주.

[2013년5월11일 오늘의 아침편지]

매주 토요일엔 독자가 쓴 아침편지를 배달해드립니다.
毎週土曜日には、読者が書いた朝の手紙を配達いたします。

오늘은 이인혜님께서 보내주신 아침편지입니다.
今日は、イ・ソクジンさまから、送っていただいた朝の手紙です。

좋은 인연
いい縁

인연이란 그렇다 하더이다.
縁とはそうしました

그렇게 고귀한 인연으로 만났습니다.
そのように高貴な因縁で会いました

세상이 존재 하려면 남녀가 만나고 암술과 수술이 만나고
世の中が存在しようとするれば、男女が会って雌しべと雄しべが会い

암컷과 수컷이 만나고 음과 양이 만나고 햇빛,물,강,
雌雄が会い、陰と陽が会い、日差し、水、川

바다,풀,나무,흙,미생물이 얽히고 설켜
海、森、木、土、微生物が絡み合って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인연이 되어
そのすべてのことが、お互い縁になって

어울려야 합니다.
一致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김홍신의《인생 사용설명서》중에서 -
- キム・ホンシンの〈人生使用説明書〉より -

* 많은 부부들 중에서도
* 多くの夫婦の中にも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는 부부가 있습니다.
一日の長くを喧嘩をする夫婦がいます

이에 반해 평생 큰 싸움 한번 안 하고 서로 눈빛만 봐도
これに比べて人生の大きな喧嘩を1度もせず、お互い目線を見ても

통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흔히 '원앙부부'라고 하지요.
通じる夫婦がいます。まさに'おしどり夫婦'というでしょう

서로 만나는 것 자체도 소중한 인연이지만 그 만남을
お互い合うこと自体も、大切な因縁だがその出会いを

평생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人生のいい因縁にしていくことも重要です

기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奇跡がまたあることではなく

좋은 인연이 기적입니다.
いい因縁が奇跡です

-더니이다

[어미] (예스러운 표현으로) 합쇼할 자리에 쓰여, 보거나 듣거나 겪은 사실을 전달하여 알림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

-더이다’ 보다 예스러운 느낌을 준다.

암술

1. [명사] 雌しべ。

수꽃술

1. [명사] おしべ。

しゅう [雌雄]

1. [명사] 암컷과 수컷.

2. [명사] 승리와 패배. 승부. 우열.

錯雜した関係

얽히고 설킨 관계

흔히

1. [부사] よく; 多く。

원앙 [鴛鴦]

1. [명사] 『조류』オシドリ(ガンカモ科の水鳥); 鴛鴦。

2. [명사] 夫婦や男女の仲のむつまじいさま:おしどり。

-더이다3

[어미] [옛말] -었습니다.